

초등학교 고학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변인연구

김 수 정 박 원 모[†] 박 상 복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659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과 제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려 하였다. 연구를 위한 검사도구로 개인관련 요인은 송원영(1998)이 개발한 자기통제력 검사를 사용하였고, 가정 관련 요인은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검사인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PACI)를, 친구관련 요인은 한국청소년상담원(1989)이 제작한 또래관계 검사를, 학교관련 요인은 Dubow와 Ulman(1989)이 만든 SSAS(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을 사용하였다. 인터넷 중독 검사는 Young(1998)이 제작한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우울검사는 Kovacs(1983)가 제작한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 불안검사는 Reynold와 Richmond(1978)가 개발한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RCMA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와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아동일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또래와의 관계가 좋은 아동일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개인관련 요인, 가정관련 요인, 친구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개인관련 요인과 가족관련 요인 및 학교관련 요인이 인터넷 중독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인터넷 중독과 우울, 불안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우울과 불안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인터넷 중독, 자기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또래관계, 우울, 불안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원모, 경성대학교, (607-820) 부산광역시 구서동 롯데캐슬 202동 1904호
 Tel : 017) 593-1932, E-mail : greegmth@hanmail.net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삶의 양식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습득하면서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났다. 우리 생활에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터넷은 하루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낄 정도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인터넷은 우리 생활 전반에 이로움을 주는 중요한 매체이지만 무분별한 인터넷 이용과 불건전한 이용으로 생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다.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의 역기능적인 측면에 노출되면서 인터넷에 중독될 위험성과 역기능적 요소가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허남숙, 2006). 한국인터넷진흥원(2006)의 조사에 의하면 만6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가 전체 인구의 73.5%(33,580천명)이며, 이는 2005년 6월말 기준 인터넷 이용률 71.9%(3,257만명)과 비교했을 때 1.6% 증가한 수치이다. 연령별로는 6-19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달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라는 특성 때문에 그 피해가 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절제한 인터넷 몰입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이선애, 2004). 이처럼 인터넷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그 사용이 무분별해짐으로서 인터넷 중독현상을 보이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최나야, 한유진, 2006),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청소년의 경우 수업시간이 줄어들고 수업시간에 집중할 수

없어서 학업능력이 떨어지며, 성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인터넷에 중독된 학생들 중에는 몰래 학교를 빠져나와 인터넷에 매달리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학교를 그만두기도 한다. 또, 신체적으로는 팔과 어깨, 시력장애, 소화불량, 수면 부족, 두통이 생기며, 심리적으로는 우울과 불안, 공격성, 충동성, 외로움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등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곽미숙, 2003).

그런데 인터넷 중독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인터넷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부정적 영향들은 성인기에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 보다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조아미, 방희정, 2003).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과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 중독이 아동들로 하여금 우울과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윤재희, 1998; 임효정, 1999; Young & Rodgers, 1998).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아동들은 사회적 문제해결과 의사소통기술, 낮은 자기 통제감, 대인관계 기술 부족으로 인해 더욱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인터넷 중독은 초등학생의 불안과 우울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므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이들을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관련 요인, 가정관련 요인, 친구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개인관련 요인인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의 자기통제력 실패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중에서도 충동 조절의 장애 또는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고(김현숙, 1998),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보다 중독적인 사용 경향을 띠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족관련 요인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중독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게 된다(박영희, 2002; 박시혜, 2002; 송미화, 2001; 이혜진, 2001; 조춘범, 2001; Young, 1996).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가족 간의 관계나 의사소통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의사소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터넷에 더욱 몰입한다(방희정, 조아미, 2002).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이지 않을수록 청소년들이 채팅에 몰입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안정화, 2003). 반면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일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심란희, 2003).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친구관련 요인과 학교관련 요인이 있다.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관계가 중요시되는 시기이다. 친구들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인터넷에 보다 쉽게 빠질 수 있다(심란희, 2004).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인터넷 사용의 증가에 따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

에서도 특히 인터넷에 중독이 되면 등교거부나 결석이 잦아지고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가정에서도 대화가 줄어들어 등대인관계 기피현상을 보인다(박영희, 2002).

다음으로 학교는 초등학생이 성장해서 사회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사회이며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는 사회관계의 장이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사와 함께 보내고 있기에 교사와의 관계는 초등학생에게 있어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교사의 지지가 큰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김혜경, 2003). 이와 같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초등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관련요인이므로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교사와 아동 간의 관계는 아동의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김소영(2007), 박옥자(2006)의 연구를 보면 정상인 학생들이 중독 수준이 심한 학생보다 담임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교사와의 관계가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교사변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학교요인 중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지금까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과 청소년들의 우울, 불안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정경란, 2000; 팽현기, 2002)과 인터넷 중독과 청소년

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들(권구영, 이해자, 2002; 김용장, 2002; 김윤희, 2005)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관련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주연, 2002; 김혜정, 2003; 최상미, 2003; 설인실, 2004; 신경선, 2004; 고은별, 2005).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이현주, 2004; 고명희, 2005)들은 대체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한두 가지의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인터넷 중독 정도와 정신건강 및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밝혀진 여러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다차원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신건강 모형구축(김윤희, 2005)이 있지만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모형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과의 인터넷 중독 및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는 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 10명당 9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조선일보, 2002).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을 찾아내어 인터넷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 중독은 정서적 측면에서 신체적으로 급격한 발달과 지나치게 발달된 자아의식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초등학생들에게 가치관 혼란과 건강한 자아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곽미숙,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제관련변인이 인터넷 중독과 어떤 상관을 이루는지 그리고 인터넷 중독 성향과 우울정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결과를 통해 인터넷 중독 성향이 있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중독 초등학생의 정신건강 중 우울, 불안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여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교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상구에 소재한 4개의 초등학교 5, 6학년을 임의로 표집하였다. 검사는 4명의 교사에게 연구 진행에 대한 유의점을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검사실시 전에 검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검사에 임하게 하였다. 700명의 학생에게 집단별로 40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최종 분석 대상자는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반응을 누락한 학생 41명을 제외하고 65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집의 구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

성별	학년	빈도	%
남	5학년	211	53.55
	6학년	143	
여	5학년	173	46.35
	6학년	132	

연구 도구

자기통제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송원영(199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 검사는 21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송원영(1998)의 연구에서는 신뢰도(Cronbach's α)계수는 .83이며, 본 연구에서는 .75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검사인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PACI)를 민혜영(1990)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부모용 질문지와 자녀용 질문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녀용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의사소통유형을 순환모형(Circumplex Model)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이를 방해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개방적인 의사소통(open family communication)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상호작용에 억압을 느끼지 않으며, 보다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다음으로 역기능적 의사소통(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상호작용이 부정적이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개방적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문

제성이 적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의 신뢰도는 부-개방형 .85, 부-문제형 .72, 모-개방형 .84, 모-문제형 .74로 나타났다.

또래관계 검사

본 연구에서 친구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는 한국 청소년상담원(1999)이 개발한 또래관계척도이다. 이 검사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의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초등학교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친구관계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바를 스스로 보고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검사는 21문항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친구 관계의 최고 점수는 125점이며 최저점수는 25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 검사

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Dubow와 Ullman(1989)이 만든 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의 사회적 지지 문항 중에서 교사와의 관계를 묻는 5문항을 중심으로 김영미(2000)가 총 10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한 것(Cronbach's α =.84)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교사와의 인간관계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를 신뢰하고 인간관계가 원활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교사관계 검사의 신뢰도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 .70, 교사와의 인간관계 .71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 검사

인터넷 중독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Young(1998)의 온라인 중독 센터에서 제작한 5점 척도로 인터넷 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를 이선희(2000)가 초등학생에게 알맞도록 수정·보완하여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검사의 신뢰도는 집합 .84, 강박적 사용 .64, 내성 .52, 생활장애 .64로 나타났다.

아동우울 검사

아동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ovacs(1983)가 제작한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우리나라 아동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아동 우울 검사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 1점, 2점으로 채점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검사-재검사 Cronbach α 는 .71이었고, 문항간 내적 일치도는 .88을 나타냈다(조수철, 이영식, 1990). 본 연구에서는 아동우울 검사에 대한 신뢰도는 .87으로 나타났다.

아동불안 검사

아동의 불안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Reynold와 Richmond(1978)가 개발한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RCMAS)를 최진숙과 조수철(199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RCMAS는 다양한 불안과 관련된 증상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한 아동임을 나타낸다.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불안의 측정 연구에서 RCMAS는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79였고, 반분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최진숙, 조수철, 1990). 본 연구에서는 아동불안 검사

에 대한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개인관련 요인, 가정관련 요인, 친구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 및 불안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개인관련 요인, 가정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 친구관련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이들 요인들의 검증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력방식(ENTER)과 단계선택방식(STEP WISE)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 중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입력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의 인구학적인 특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를 보면 인터넷 사용 빈도, $\chi^2=38.95$, $p<.001$, 인터넷 하는 시간, $\chi^2=39.79$, $p<.001$, 인터넷을 시작한 이유, $\chi^2=35.67$, $p<.001$,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chi^2=227.95$, $p<.001$, 모두에서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들이 여자들 보다 많은 시간동안 인터넷을 하며,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남		여		χ^2
		빈도	%	빈도	%	
인터넷 사용 빈도	거의 하지 않는다	25	7.06	43	14.10	38.95***
	일주일에 1-2일	64	18.08	59	19.34	
	일주일에 3-4일	66	18.65	84	27.54	
	일주일에 5-6일	45	12.71	48	15.74	
	거의 매일	149	42.09	71	23.28	
	무응답	5	1.41	0	0	
	인터넷 하는 시간	30분 이내	28	7.91	1	
30-1시간 미만		81	22.88	41	13.44	
1-2시간 미만		132	37.29	121	39.67	
2-3시간 미만		66	18.64	93	30.49	
3-4시간 미만		17	4.80	36	11.80	
4-5시간 미만		20	5.65	7	2.30	
5시간 이상		7	1.98	5	1.64	
무응답		3	.85	1	.33	
인터넷을 시작한 이유	친구의 소개	49	13.84	33	10.82	35.67***
	새 친구를 사귀려고	14	3.96	12	3.93	
	부모님 하시는 것을 보고	64	18.08	51	16.72	
	학교 숙제를 위해서	90	25.42	136	44.59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34	9.60	18	5.90	
	기타	97	27.40	54	17.71	
	무응답	6	1.70	1	.33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이메일	7	1.98	42	
채팅		22	6.22	84	27.54	
정보검색 및 자료검색		38	10.73	82	26.89	
온라인 게임		275	77.68	63	20.66	
기타		12	3.39	34	11.14	

*** $p < .001$

남자들은 주로 게임을 많이 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채팅이나 자료검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통제력과 인터넷 중독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자기 통제력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자기통제력은 인터넷 중독과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 통제력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 통제력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인터넷 중독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기 통제력에 대한 인터넷 중독 간의 회귀분석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 통제력은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으며, $\beta = -.38$, $t = -10.42$, $p < .001$, 전체 분산의 14.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터넷 중독에 대한 입력방식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β	t	F	R ²
자기통제	-.38	-10.42***	108.50***	.142

*** $p < .001$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인터넷 중독

초등학생들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자녀 의사소통 개방형은 인터넷 중독과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제형은 인터넷 중독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자녀 의사소통 2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인터넷 중독을 준거변인

표 3. 자기 통제력과 인터넷 중독간의 상관관계(N=647)

변인	집착	강박적사용	재발	내성	생활 장애	인터넷 중독
자기 통제력	-.33***	-.31***	-.21***	-.21***	-.34***	-.38***

*** $p < .001$

표 5.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인터넷 중독 간의 상관관계(N=647)

	변인	집착	강박적 사용	재발	내성	생활 장애	인터넷 중독
부	부개방형	-.19***	-.19***	-.11**	-.12**	-.19***	-.21***
	부문제형	.25***	.18***	.18***	.17***	.29***	.29***
모	모개방형	-.21***	-.21***	-.13***	-.14***	-.20***	-.24***
	모문제형	.19***	.15***	.10**	.13**	.24***	.22***

** $p < .01$, *** $p < .001$

표 6. 인터넷 중독에 대한 입력방식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β	t	F	R ²
부	개방형	-.17	-4.54***	40.73***	.110
	문제형	.26	6.94***		
모	개방형	-.20	-5.19***	31.25***	.087
	문제형	.18	4.74***		

*** $p < .001$

로 하여 입력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인터넷 중독 간의 회귀분석결과 표 6과 같이 부-자녀 의사소통 개방형, $\beta = -.17$, $t = -4.54$, $p < .001$, 부-자녀 의사소통 문제형, $\beta = .26$, $t = 6.94$, $p < .001$, 모-자녀 의사소통 개방형, $\beta = -.20$, $t = -5.19$, $p < .001$,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형, $\beta = .18$, $t = 4.74$, $p < .001$, 모두가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으며, 부-자녀 의사소통은 전체 분산의 11.0%, 모-자녀 의사소통은 8.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와 인터넷 중독

초등학생들의 또래관계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래관계와 인터넷 중독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또래관계에 대한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또래관계 7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인터넷 중독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입력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7. 또래관계와 인터넷 중독 간의 상관관계

변인	집착	강박적사용	재발	내성	생활 장애	인터넷 중독
만족감	-.22***	-.14***	-.09*	-.14***	-.23***	-.23***
의사소통	-.17***	-.13***	-.11**	-.09*	-.21***	-.19***
신뢰감	-.19***	-.16***	-.12**	-.16***	-.23***	-.23***
친근감	-.15***	-.17***	-.16***	-.07	-.19***	-.18***
민감성	-.20***	-.12**	-.12**	-.06	-.22***	-.19***
개방성	-.13**	-.14***	-.09*	-.07	-.17***	-.15***
이해성	-.20***	-.14***	-.16***	-.12**	-.21***	-.21***
또래관계	-.24***	-.18***	-.15***	-.14***	-.27***	-.26***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인터넷 중독에 대한 입력방식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β	t	F	R ²
만족감	-.12	-2.41*		
의사소통	-.05	-1.06		
신뢰감	-.06	-1.04		
친근감	-.03	-.56	7.28***	.073
민감성	-.04	-.72		
개방성	.01	.20		
이해성	-.05	-.84		

* $p < .05$, *** $p < .001$

또래관계에 대한 인터넷 중독 간의 회귀분석결과 표 8과 같이 만족감만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으며, $\beta = -.12$, $t = -2.41$, $p < .001$, 전체 분산의 7.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와 인터넷 중독

초등학생들의 교사관계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관계는 인터넷 중독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관계에 대한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표 9. 교사관계와 인터넷 중독 간의 상관관계(N=647)

변인	집착	강박적사용	재발	내성	생활 장애	인터넷 중독
인간관계	-.27***	-.18***	-.16***	-.13**	-.26***	-.26***
사회적 지지	-.23***	-.17***	-.17***	-.13**	-.22***	-.24***
교사관계	-.28***	-.19***	-.18***	-.14***	-.26***	-.27***

** $p < .01$, *** $p < .001$

표 10. 인터넷 중독에 대한 입력방식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β	t	F	R ²
인간관계	-.19	-3.52***	26.42***	.075
사회적지지	-.10	-1.94		

*** $p < .001$

교사관계 2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인터넷 중독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입력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교사관계에 대한 인터넷 중독 간의 회귀분석결과 표 10과 같이 인간관계만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으며, $\beta = -.19$, $t = -3.52$, $p < .001$, 전체 분산의 7.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관련 요인, 가정관련 요인, 친구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과 인터넷 중독

초등학생들의 개인관련 요인, 가정관련 요인, 친구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관련 요인, 가정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 친구관련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관련 요인의 자기통제력, 가정관련 요인의 부

표 11. 자기통제, 부모의사소통, 또래관계, 교사관계, 인터넷 중독, 우울, 불안 간의 상관관계

	자기 통제	부 개방형	부 문제형	모 개방형	모 문제형	또래 관계	교사 관계	인터넷 중독	우울	불안
자기통제	-									
부개방형	.33**	-								
부문제형	-.28***	-.17***	-							
모개방형	.38***	.45***	-.12**	-						
모문제형	-.26***	-.06	.57***	-.21***	-					
또래관계	.52***	.37***	-.28***	.42***	-.26***	-				
교사관계	.40***	.33***	-.25***	.33***	-.19***	.43***	-			
인터넷 중독	-.38***	-.21***	.29***	-.24***	.22***	-.26***	-.27***	-		
우울	-.38***	-.25***	.36***	-.26***	.34***	-.56***	-.35***	.28***	-	
불안	-.33***	-.21***	.36***	-.14***	.32***	-.47***	-.25***	.33***	.63***	-

** $p < .01$, *** $p < .001$

모-자녀 의사소통, 학교관련 요인의 교사관계, 친구관련 요인의 또래관계 4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인터넷 중독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계선택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가지의 예측변인 중에서 인터넷 중독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은 자기통제, $\beta = -.25$, $t = -6.22$, $p < .001$, 부문제형, $\beta = .18$, $t = 4.93$, $p < .001$, 교사관계, $\beta = -.09$, $t = -2.38$, $p < .05$, 모개방형, β

$= -.09$, $t = -2.23$, $p < .05$,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총변량의 19.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관련 요인인 또래관계는 단계선택의 기준에 의해 제외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개인관련 요인과 부모관련 요인 및 학교관련 요인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지만 친구관련 요인인 또래관계는 인터넷 중독의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인터넷 중독에 대한 단계선택방식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β	t	F	R ²
자기통제	-.25	-6.22***		
부문제형	.18	4.93***		
교사관계	-.09	-2.38*	39.44***	.194
모개방형	-.09	-2.23*		

* $p < .05$, *** $p < .001$

인터넷 중독과 우울 및 불안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3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은 우울 및 불안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울과 불안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 13. 인터넷 중독과 우울 및 불안 간의 상관관계

변인	집착	강박적사용	재발	내성	생활 장애	인터넷 중독
우울	.27***	.16***	.17***	.17***	.30***	.28***
불안	.30***	.22***	.17***	.23***	.31***	.33***

*** $p < .001$

표 14. 우울과 불안에 대한 입력선택방식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예측변인	β	t	F	R ²
우울	집착	.13	2.44*	14.44***	.100
	강박적사용	-.03	-.73		
	재발	.04	.96		
	내성	.03	.63		
	생활장애	.20	3.62***		
불안	집착	.15	2.82**	17.30***	.117
	강박적사용	.02	.50		
	재발	.02	.40		
	내성	.08	1.88		
	생활장애	.15	2.75**		

* $p < .05$, ** $p < .01$, *** $p < .001$

살펴보기 위하여 인터넷 중독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우울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입력선택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인터넷 중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집착과 생활장애만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beta = .13$, $t = 2.44$, $p < .05$, $\beta = .20$, $t = 3.62$, $p < .001$, 이들 변인은 총변량의 10.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안의 경우에도 집착과 생활장애가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beta = .15$, $t = 2.82$, $p < .01$, $\beta = .15$, $t = 2.75$, $p < .01$, 이들 변인들은 전체 변량의 1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관련변인인 개인, 가정, 친구 및 학교관련 요인과 심리적 변인인 우울, 불안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개인관련 요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중독은 자기통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과 부적 상관이라고 보고한 송원영

(1998), 김종원, 조옥귀(2002), 최은희(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자기통제력이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자기통제력은 시간의 경과와 관련해서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는 작은 강화물보다 어렵고 큰 강화물을 먼저 선택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자기 통제력이 높은 아동은 그 당시 제공되는 인터넷상의 강력한 강화물의 영향력을 벗어나 현실생활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아동은 현실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만족을 지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최은희, 2004).

둘째, 초등학생의 가정관련 요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자녀의사소통 개방형 및 모-자녀의사소통 개방형은 인터넷 중독과 부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나, 부-자녀의사소통 문제형과 모-자녀의사소통 문제형은 인터넷 중독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인터넷 중독지수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며,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아동의 인터넷 사용빈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송원영, 1998; 윤재희, 1999; 안석, 2000)와 일치한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와 아동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아동의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행동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반대로 부모-자녀 간의 폐쇄적인 의사소통은 인터넷 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모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애정

결핍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모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줄여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서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초등학생의 친구관련 요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민감성과 개방성만 내성과 상관이 없었고, 민감성과 개방성을 제외한 요인들은 인터넷 중독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의 긍정적인 지지가 인터넷 중독성향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는 기존 연구들(정민희, 2003; 조춘범, 2001)과 일치하는 결과로 또래관계에서 인정을 받는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 중독 정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상의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은 현실의 세계에서 대화상대나 놀아줄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익명성의 특성이 있는 인터넷에 쉽게 중독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또래들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적응적이고 기능적인 생활을 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욕구의 대리 충족이나 가상적 관계에 집착할 가능성은 적어진다(오익수, 1991). 이는 좋은 또래관계가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아동에게 있어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넷째, 초등학생의 학교관련 요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사관계 전체의 경우 인터넷 중독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순희(2002)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

터넷 중독집단보다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은 집단이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인터넷을 적게 사용할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김영희, 2002; 한복희, 2001).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것은 권위 있는 인물과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권위 있는 인물과의 관계를 적절히 맺을 수 있는 초등학생은 규범적인 가치에 적용인 경향을 보인다는 이지향(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황수정(2000)의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에 대한 교사의 지지 지각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다섯째, 초등학생의 개인관련 요인, 가정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 친구관련 요인 중에서 개인관련 요인인 자기통제력과 가정관련 요인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학교관련 요인인 교사관계가 인터넷 중독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아직 자기통제능력이 미성숙한 시기이므로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신의 통제능력이 부족하여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들의 자녀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김소영(2007), 박옥자(2006)의 연구에서 정상인 학생들이 중독수준이 심한 학생보다 담임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애착이 형성된 아동의 경우,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하면 아동의 비행이 감소되고, 교사의 의견존중이 비행에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선행연구(Hirschi, 1969; Hindelang, 197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고,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기 때문에 교사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므로 교사와의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교사는 지식전달의 측면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행동 강화와 모델링의 과정을 통하여(Parson et al, 1982)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아동에 대한 기대(Rosenthal, R. & Jacobson, 1968)가 아동의 역할 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사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중독을 예방하여야 한다. 교사는 아동의 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올바른 인터넷 행동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고, 적절한 과제를 제시하여 아동이 인터넷을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과정에 생긴 의문이나 갈등을 대화로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으며, 학부모와의 연계교육을 통해 최근 아동들의 인터넷 활용과 관련된 지식, 정보 등을 전달하여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허남숙, 2006).

여섯째,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울과 불안 모두 인터넷 중독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은 집단보다 중독된 집단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과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고한 이석범(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한 초등학생일수록 우울

과 불안을 많이 느낀다는 김주연(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는 연구들(서주현, 2001; 김윤희, 2002; 김종원, 조옥귀, 2002)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과 불안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불안이 증가하고 대인관계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Young, 1997; 김원희, 2006)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인터넷에 오랫동안 중독이 된 학생들이 가족관계나 친구관계가 긍정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신체적 문제를 호소하며,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고 초조해 할 것으로 생각된다(곽금주, 강수연, 1997). 또한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가상공간에서 집착하며, 그 속에서 만족감을 얻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의 대인관계는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된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의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시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둘째, 초등학교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결과를 얻었으나, 최근 인터넷 사용 추세를 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상 연령층이 점점 더 낮아지고, 그에 따라 중독의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자기관련요인인 자기통제력과 학교관련 요인인 교사관계가 가장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자기통제력 훈련 프로그램과 교사들과의 결연을 통한 멘토링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남녀 데이터를 모두 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이나 사용방법 등에 있어서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 따라서 이후의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에서는 남녀를 분리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남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여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고명희 (2005).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인터넷중독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은별 (2005). 초등학교의 인터넷중독상태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금주, 강수연 (1997). 전자게임에 몰입한 아동의 심리 진단적 특성(I): 사례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4(1), 1-18.

곽미숙 (2003). 인터넷 게임 과다몰입 청소년을 위한 인지 행동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교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구영, 이혜자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6), 59-86.

김소영 (2007). 초등학교의 인터넷 중독, 학교생활적응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원광대

-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희 (2002). 인터넷 중독이 아동의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2000).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지역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장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과 자아존중감 및 정신증상 차원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희 (2006).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대인 불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2005).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정신건강 모형구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원, 조옥귀 (2002). 중·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 사회환경적 요인 및 인터넷·게임 중독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2(2), 477-500.
- 김주연 (2002).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 (1998). 해결중심 단기상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2000).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 (2003).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인터넷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혜영 (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시혜 (2002).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희 (2002).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 사용과 대인관계 특성,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옥자 (2006). 초등학생의 학년에 따른 인터넷 중독 수준과 학교적응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희정, 조아미 (2003).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6(1), 1-22.
- 서주현 (2001).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친구관계의 기능, 구조적 특성 및 만족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인실 (2004).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가정의 인터넷 사용 환경과의 관계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화 (2001). 가족기능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원영 (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선 (2004).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원인 분석.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란희 (2003). 인터넷중독과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의 관련

- 성.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석 (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정화 (2003). 대인관계문제유형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중학생의 채팅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익수 (1991).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대한 심리적 결정요인들간의 인과적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재희 (1999).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애 (2004).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과 사회적 적응능력의 관계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 (2000). 청소년들의 PC통신 이용실태 및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향 (2005). 인터넷 환경변인과 중재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 (2004). 집단미술활동이 초등학생의 자기 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진 (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개인, 가족, 학교 및 또래 환경 요인과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효정 (2000). 사이버 의존 집단과 비의존 집단간의 심리특성 연구: 대인예민성과 우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란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과 가족의 심리적 환경 및 불안, 우울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민희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일보 (2002. 2. 17). 초등학생 '인터넷 주목 적은 게임'.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 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6.
- 조아미, 방희정 (2003).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1), 249-275.
- 조춘범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나야, 한유진 (2006). 충동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인터넷 게임에 대한 기대가 아동,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209-219.
- 최상미 (2003).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교사문화와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에 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희 (2004). 초등학생의 컴퓨터게임 중독과 자기통제력, 부모의 통제간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숙, 조수철 (1990). 소아 불안의 측정 - RCMA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 신경정신의학, 29(3), 691-702.
- 팽현기 (2002).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우울감, 충동성, 사회 회피 및 불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2006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 한국청소년 상담원 (1999).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복희 (2001). 인터넷 중독 정도가 청소년에게

- 미치는 심리·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남숙 (2006). 초등학교의 인터넷 중독과 부모
교사태도 및 정신건강의 실태. 서울교육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수정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 지각 및 사회적응력간의 관계. 계명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f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Dubow, F.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1), 52-64.
- Hindelang, M. J. (1973). Causes of delinquency: A
partial replication and extension, *Social
Problems*, 20, 471-487.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ovacs, M. (1983).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for
school for school-aged youngsters*. Unpublished
Manuscript,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 Reynolds, C. R., Richmond, B. O. (1978). What I
think and feel : a revised measure of
children's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6(2), 271-280.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Young, K. S. (1997). *What make the Internet
Addictive: Potential explanations for pathological
internet use*. Proceeding of the 105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ug 15, Chicago, IL.
-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ic for recovery*. New York:
Wiley & Son, Inc.
- Young, K. S., & Rodgers, R. C. (1998). *Internet
addiction: Personality traits associated with its
development*. The 69th annual meeting of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원고접수일 : 2007. 9. 29.

게재결정일 : 2007. 11. 30.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Personal, Familial, Social and School Related Causes

Kim, Su-Jung

Park, Won-Mo

Park, Sang Bok

Pukyong University

Kyungsoong University

In this research, I want to observ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in elementary students and personal, family, relations with friends and school as causes. I wan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in elementary students and depression and anxie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659 students from grades 5 and 6 from four elementary school. To examine the causes of internet addiction, I used control power scale questionnaire, internet addiction test, parent 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 teacher relationship questionnaire, peer relationship inventory,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n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To observ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in elementary students and its various causes, I process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I executed the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12.0.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following: First, there appears to be considerable stastical correlation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personal relations Those who reported high feelings of control also recorded low levels of internet addiction, while those who report little control recorded high levels of addiction. Second, there also appeared to be a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Open-minded communication with parents corresponded to a low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while lack of communication corresponded to a high degree. Third, children with high degrees of internet addiction reported worse relations with their teachers then those with low degrees. Fourth, the children with high degrees of internet addiction reported worse relations with friends then those with low degrees. Internet addiction in children did not correspond to good relations with friend. Fifth, the result of analysis indicate that control power,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relations with their teachers are significant factor of predicting internet addiction. Sixth, there appears to be a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mental health. It appears that internet addiction is considerable connected to mental health. It seems that children are more likely to feel anxiety and depression when they are addicted to the internet.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control power, parent adolescence communication, teacher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depression, anxiety, elementary students